

평안가족보

< 명후이 팩스 > 증간
2021년 3월 5일 제 23기

'돌파프로그램' 파일 내려받기
컴퓨터판 : <https://git.io/fgp88>
안드로이드판 : <http://git.io/fgm88>

역병을 피하는 데는 진언이 있다

< 신선전 수선공 >에 기재된데 따르면 서한시기 쑨단이라고 부르는 수도인이 있었다. 그가 신선이 되기전 모친에게 래년에 역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니 그때가되면 우물속의 샘물로 꿀잎을 끓여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듬해에 과연 대역병이 폭발했는데 모친은 그의 방법에 따라 무수한 향민을 구해주었다. 중국 고대에는 신선으로 된 수도인이 미래를 예측하고 세인을 구한 이야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고대에 편작(扁鵲), 화타(華佗), 손사막(孫思邈), 이시진(李時珍) 등등과 같은 이런 대의학자들은 모두 투시, 요시와 예측능력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은 모두 중화 신전문화 (3면에 계속)

건강 신심의 정화, 평온 그리고 관용

순천 사전 대홍수는 진실하게 존재했다

평안 "신이 작곡한 음악" 음악가는 행운스럽게 영감을 얻다

일념사이 역병에서 위험을 피하다

살려는 본능이 그들더러 위난시각 '구자 진언'을 접수하게 되어 대법(따파, 大法)의 초상함을 감오하다.



▲ 푸뤄세와 그의 세 외손녀

역병기간 캐나다 퀘벡에서 생활하고 있는 캐시·푸뤄세는 한차례 생사 겁난을 넘겼다. 작년 3월 27일 오후 그는 주차장에서 부주의로 견인차 고리에 걸려 얼굴이 바닥을 향한채 넘어지면서 잇따라 오른쪽 가슴도 땅에 심하게 부딪혔다. 그날밤 그는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 중환자실로 호송됐다.

“저와 다른 환자 사이에는 단지 커튼으로 가려졌는데 당시 저는 무한 폐렴 확진자 사이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저의 판단이 맞았어요.” 푸뤄세는 말했다: “아무리 검진을 해도 의사들은 심장 때문인지 아니면 위 부위가 문제인지를 판단해내지 못했고, 저는 몰 한 모금만 마셔도 고통이 더 심해져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역병기간이라 가족 동반과 방문이 금지되었기에 저는 다만 혼자서 고통을 견뎌야만 했어요.”

저녁 8 시반에 딸 푸지니아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렵푸시나마 딸이 나에게 대법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 그는 나더러 그 한마디 바로 제가 보기에 마치 일종 영원한 지혜의 말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똌싼런하오 (眞善忍好)’ 를 넘하라고 했다.

파룬따파 수련생이지만 그러나 저는 아니었어요. 후에 남편 체커와 전화를 바꿨는데 남편도 파룬궁 수련생이 었지요. 그는 나더러 그 한마디 바로 제가 보기에 마치 일종 영원한 지혜의 말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똌싼런하오 (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넘하라고 하면서 나더러 묵묵히 넘하고, 반복적으로 넘하고, 내심으로 부터 넘하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이는 나의 신체가 건강했을 때라면 아마 거절했을 것이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번 만은 나도 체커를 따라 함께 읽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잠이 들었는데 대략 새벽 2 시에 깨어났고 내가 실험삼아 한번 움직여 보니 진짜 온 몸의 극도로 된 고통이 전부 사라졌어요. 이걸 반드시 대법의 신기한 힘이 일으킨 작용이 었어요.”

위난중에서 일념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다른 한 파룬궁수련생이 서술한 무신론을 믿던 형이 생명의 최후시각에 구원 받은 이야기도 있다. “인근 슈퍼마켓 경비원이 역병에 걸려 사망되고, 그의 병원의 외과의사도 감염돼 돌아갔어요. 어제는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의사가 돌아갔어요.” 전화중에서 형이 불안한 심정을 감수할 수 있었다. 나의 형은 1990 년대에 북경의대 박사를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며, 현재 뉴욕의 한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하 (6면에 계속)



심리학자는 가장 높은 급의 바른 에너지는 사랑 혹은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 평화라는 점을 발견하다.

신심의 정화, 평온 그리고 관용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연구에서 모두 백세 노인이 장수한 비결은 음식이 아니라 낙관이 라는 것을 발견했다. 즉 성격이 낙관적이고, 근심걱정이 적으며, 기본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며, 한평생 평온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 타이웨이·휘진스는 연구에서 가장 정면적이고, 촉촉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정서의 에너지 등급을 낮은 데서부터 높은데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배열했다: 용기 (200), 냉정 (250), 주동 (310), 관용(350), 명지 (400), 사랑(500), 기쁨 (540), 평화 (600).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마음가짐이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지 못한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지도로 삼아 사람의 심성을 제고되게 하며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욱해도 대꾸하지 않는" 관용하고 참을성이 있게 타인을 먼저 배려함을 가르친다. 동시에 또 5장의 느슨한 수련공법이 있어 가부좌를 하고 입정할때면 강대하고 자비로운 에너지장을 느낄 수 있고, 상서롭고도 미묘함을 감수할 수 있다. 아주 많은 수련생들은 수련

후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평화롭고 관용할 수 있게 됐다.

아래에 몇명의 동서방 파룬궁 수련생이 수련하여 몸과 마음에서 수익을 본 이야기를 하겠다.



여교수의 상상할수 없는 변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경제계 교수 루시야 탕언은 사업에서 성공한 여자 강인이다. 그는 2000년부터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루시야는 "수련후 저는 일에 부딪히면 급히 주도하려던 습관을 버리고 더는 '당신을 위해서'를 앞세워 타인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됐어요. 정면으로, 포용과 자비로 사람과 일을 대했어요. 원래 남편과 사이가 매우 나빴지만 현재는 내가 관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감과 중요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련후 저는 그와 집식구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전에 루시야는 아이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따내기를 희망했기에 아이들에게 많은 압력을 주었다. 그는 말했다: "만약 일찍

대법(大法)을 배웠더라면 아이들에게 과분한 압력을 주는 대신 아이들의 잠재력과 부동한 학습상태를 존중했을 것이에요. 생각밖으로 제가 집착을 내려놓으니 그들은 각면에서 오히려 더욱 훌륭해 졌어요."



공정사는 역병을 담담하게 대했다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계공정사 천화는 1999년 중공이 파룬궁박해를 시작할때 파룬궁수련으로 들어왔다. "저는 <인민일보>의 선전을 믿지 않았고, 국내에서 파룬궁수련생이 공원에서 하는 아침 연공장면을 보고 특별히 장엄하고 특별히 신성하다고 느껴 아주 격동했어요. 중공의 파룬궁박해는 또 한차례의 문화대혁명과도 같아요." 대법 수련은 그로 하여금 도덕이 승화되고, 나쁜 성격을 고치고, 담배와 술을 끊고 성공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했다. 가장 관건적인 것은 현재 역병이 유행할때 사람마다 공포에 빠졌으나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했다. "만약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자살하려고 그녀가 마난에서 걸어나오다

태국에서 출생한 대만 여성 샤오쩐은 태국의 가장 높은 학부를 필업했다. 대학에 다닐때 미술응용예술을 공부했고 게다가 자신의 우아한 기질이 더해져 점차 전형적인 완미주의자로 됐다. 하지만 샤오쩐의 신체는 줄곧 좋지 않았 (4면에 계속)

대홍수는 실제 존재했다

“홍수와 폭풍이 몰아쳐 거의 하룻밤 사이에 대륙의 모든 평지, 구릉과 낮은 산을 침몰하여 단지 높은 산에서 거주하거나 높은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사전 대홍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전 대홍수에 상관된 기재가 약 600 여개 있는데 대홍수 후 남겨진 입증할 수 있는 장대한 유적도 발견됐다. 때문에 그들은 사전 대홍수는 실제 존재했다고 인정한다.

과학자들은 홍수 전, 지구의 인류사회는 고도로 문명화되어 있었고 금자탑, 해 피라미드, 사하라 사막의 암석 등 아주 많은 건축물은 인류가 풀지 못할 신비한 과학과 예술적 작품이었다. 하지만 사전문명의 훼손적인 재해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류가 훼손된 원인은 거의 일치했다. 대부분 인류가 하늘과 신을 더는 공경하지 않을 때, 도덕이 극도로 부패해 졌을 때 천신들은 크게 화를 내며 겁난을 내리는데 극소수의 선량한 사람만이 훼손되지 않았다. ‘구약’에 기재되는데 의하면 하루는 하나님이 선량한 노아(诺亚)에게 말했다. “세계가 죄악에 빠져, 나의 초심을 어겼다. 내가 홍수를 땅에 내려, 온 세상을 멸할 것이니, 땅에

핏기 있는 생물이 하나도 살아남는 것이 없을 것이지만 나는 오히려 너와 네 처자가 모두 방주에 들어가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고 너와 약속한다.”

인류는 파멸적인 대홍수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5천 년이 지났다. 불행히도, 100여 년 전에 탄생한 공산주의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왔고 인류에게 반신(反神), 폭력 혁명을 숭상하고 투쟁 철학을 널리 알리며 그것은 서양에서는 글로벌리즘과 큰 정부를 빙자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인류를 통제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재난의 근원은 공산 유령과 무관하지 않다. 공산 유령의 기획과 유혹 속에서 중국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도덕성은 신(神)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인류가 이대로 나가면

대부분 인류가 하늘과 신을 더는 공경하지 않을 때, 도덕이 극도로 부패해 졌을 때 천신들은 크게 화를 내며 겁난을 내리는데 극소수의 선량한 사람만이 훼손되지 않았다.



▲ 삽화: “삼퇴”해야 평안하다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미 위태롭다. 현재의 무한 페럼병독은 대홍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사전시대 노아는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술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신념이 마로 변해버렸기에 노아를 미치광이로 여겼고 나중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늘날 파룬궁 수련생들은 신의 사자(使者)로서 대겁난이 오기 전에 세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人好)’를 전하고 있는데 공손하게 선한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공산사령과 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겁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까지 3억 7000만 중국인이 “삼퇴”(중공 조직에서 퇴출)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다. 당신도 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1면의 계속)의 정화(精華)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공은 미신이라고 하는데 기실 이는 현대과학보다도 더욱 높은 과학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불가(佛家) 고덕 대법으로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특

의효과가 있으며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역이 되는 수련자가 신심수익을 얻었다. 역병기간 일부 환자들도 ‘구자 진언’을 성심껏 넘하므로써 겁난을 넘겼다. 이는 가장 간단하지만 또한 가장 효력이 있는 명을 구하는 좋은 처방이다.



역병 기간 50년 당령인 부친이 **퇴 망** 하다

무한 폐렴 폭발기간 나는 어머니께 전화로 문안인사를 드린 후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眞善人好)’를 넘하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가 전화를 넘겨 받자 나는 아버지에게도 역병상황이 엄중하기에 많이 조심하라고 했다. 아버지는 “신불보살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보살님과 하느님의 보호를 구하시는데 그들도 모두 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신론의 당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탈퇴해야 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탈퇴는 직장 조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으로 탈퇴하여 하느님이 알면 되고 아버지는 가명으로 무신론 조직에서 탈퇴하면 됩니다.”

나는 한글자 한글자씩 말했다: “우리 중국에는 ‘사람 마음에 일념이 생기면, 하늘과 땅이 모두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

까? 신불은 무엇이든 다 알기에 마음만 뵙니다!” 아버지는 웃었다. 나는 이어서 아버지에게 행복하게 장수하라는 뜻으로 “복수 (福壽)”라는 좋은 가명으로 가입했던 당에서 탈퇴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좋아! 좋아!”라고 대답했다. 그다음 나는 그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眞善忍好)’이 구자를 넘하라고 부탁했고 성심성의로 넘하면 기적을 견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또 할머니도 여러번 넘어졌으나 ‘구자 진언’을 넘해서 별일 없었던 복받은 사례를 말했다. 여기까지 들은 아버지는 또 웃으셨다.

이것은 몇년이래 나와 아버지의 통화중 시간이 가장 길고도 가장 유쾌한 날이었다. 예전에 아버지는 나의 이런 말을 전혀 들어 주지 않았다. 부친은 50여년 당령을 가진 정사급 간부인데 이전에는

누가 공산당이 나쁘다고만 하면 화를 냈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박해를 시작한후 기편당한 아버지는 집에서 나를 위해 “가정 투쟁회”를 열었다. 이번에 아버지가 이렇게 통쾌하게 탈퇴한 것을 자세히 생각해보니 때가 된 것이다. 이 몇년간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진상을 듣기 싫어하긴 했지만 그러나 나의 시부모님들도 파룬궁 수련을 통해 수익을 얻었고, 나도 수련후 더욱 선량하고 효성스러워 졌으며, 할머니도 ‘구자 진언’을 넘해 수익을 본 이 모든 사실을 친히 목격했기에 아버지도 언녕 마음속으로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개변됐던 것이다. 이번 무한 폐렴에서 무신론자인 그에게도 대법의 보호를 구하려는 생각이 있었기에 생명에서 가장 명지한 결정 - 탈당을 선택할 수 있었다.



코드 찍어 "삼퇴" 하기

(2면의 계속) 다. 결혼후 두번째와 세번째 태아를 잃은 타격은 그녀로 하여금 정신이 붕괴될 지경이어서 매일마다 아주 울적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의 남편은 불시에 <전법륜 (轉法輪)> 을 읽겠는가고 물었다. 법공부를 한후 그녀는 멧혀진 마음의 매듭이 풀리면서 고통과 우울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원래 심리와 신체는 연결되어있기에 마음이 풀리니 몸도 가벼워 졌어요.”라고 체득을 말했다.

과거 그는 남편과 화를낼 때면 폭주 (飆車) 를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손목을 베었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잘지 않게 대할때면 매번 인생이 완벽하

지 않은 이상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파룬궁을 수련한후 그는 그런 생각은 모두 사심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의 감수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했다. “수련후에야 저는 원래 모든 것이 우연하지 않으며 어둠속에 일체 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으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게 됐어요.” 라고 했다.



수년간의 나쁜 성격을 버리다

토여사는 과거 성격이 아주 조폭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

장 개변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나쁜 성격이었어요. 과거 나는 단련, 요가, 권투, 심리상담, 고무관련 서적을 보는 등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공제하려고 애써봤지만 그러나 여러해가 지난후에도 상황은 진정 개변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사람 혹은 모종의 물건이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희망했어요.” 2019년 7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한후 근근히 몇달밖에 안되는 사이에 그녀의 두통과 허리통이 사라졌고, 평온하고 느슨하게 변하면서 더는 화도 내지 않았다. 남편도 그의 변화를 보고나서 수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방금 1학년을 다니는 큰딸 쥐이는 이미 영문 <전법륜 (轉法輪)> 을 스스로 통독할 수 있다.



SHEN YUN PERFORMING ARTS

▲ 선원 연출은 찬란한 중화신전문화를 재현했다.

“신이 작곡한 음악” 음악가는 행운스럽게 영감을 얻다

“이것이 바로 신이 작곡한 음악이죠!” “이처럼 완미해요!!” 모데나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텔런트인 Marcella Spaggiari는 선원을 본후 찬성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2020년 1월 19일, 이태리 오페라 고향인 모데나시는 미국 선원예술단이 파바로티극장에서 4번째로 된 연출을 맞이했다. 큰 막이 천천히 열리자 중국 전통복장을 한 무용가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중국 전통문화 이야기를 생동하게 연출해 중화 5천년의 휘황한 문명을 재현시켰다. 음악가인 Spaggiari는 선원의 중, 서양의 장점을 취합한 교향악단에 대해 극도로 추앙하면서 미묘하고, 평화로우며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칭찬했다. 그는 선원이 바로 중국 전통문화의 “되돌림”이며 “중국문화의 문예부흥시대”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말했다: “선원의 음악은 나에게 영감을 얻게 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일종의 연의 방식으로, 선원의 이런 평화적인 방식으로, 몸과 마음 모두 주변 에너지와 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곡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선원의 음악은 또 나에게 신성한 느낌을 주며 마치 선원의 그 이름마냥 ‘신의 율동의 미’이며, 선원의 음악도 역시 ‘신이 작곡의 미’이자, ‘신이 연주하는 미’입니다.”

선원의 배경음악 외에도 연출의 각방면에서 모두 그에게 비할바없는 진감을 주었다. 그는 말했다: 첫번째 진감은 선원 무용에서의 “힘과 교묘함의 결합”이고; 두번째 진감은 “예술가, 전체 무용가들 사이에 나무랄데없는 배합과

합작”입니다. 나는 연출중에서 어느 한 무용가는 어떠한 시각에서도 무용편집을 벗어나는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선원출연자들의 “그런 수련의 기초가 있기에 도달할 수 있는 강한 집중력의 무용방식입니다.” 그녀는 그도 경상적으로 명상(冥想)을 하기에 출연자들의 집중력은 그들의 수련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번째 진감은 선원 연출이 그에게 준 “사악과 어떻게 대항하는가”의 계시였다. “사악이 바로 우리의 세계를 영향주고 사람의 행위에 영향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것이 쓰나미(海嘯) 등 재난을 초래할 수 있고 무용중에서 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매 사람마다 능히 자신부터 누우치고 능히 신의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곧 능히 이 세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악 료법 대법(大法) 음악이 기 약한 효력을 나타낸다

누구얼부부와 사랑하는 두 아이



음악 료법은 오랜 역사가 있다. 악(樂, 樂)과 약(藥, 藥)은 본래 동원(同源) 글이다. 《황제내경·소문》중에서 말했다: “하늘에는 오음이 있고(天有五音), 사람은 오장이 있다(人有五臟).” 오음은 오장을 대응하여 이 오음사이에는 서로 영향주고 가히 인체내의 오장정기의 흐름을 조절시킬 수 있다. 현재 파룬따파(法輪大法) 음악에는 대법의 내함이 있기에 더욱 기약한 효력이 있다. 아래 우리함께 3가지 진실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누구얼과 남편 리어우쓰는 체코 파룬궁수련생이다. 2019년 그들의 두 번째 아기가 출생했을 때 대변에 피가 있었다. 누구얼은 “나는 사부님과 파룬따파 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튿날 나는 <전법륜(轉法輪)>을 읽어주고, 또한《보도(普度)》와《제세(濟世)》음악을 풀어 아기에게 들려줬어요. 저녁이 되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 후 아기는 당장 토할 것만 같았어요. 아기의 입에 검은색 이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얼른 아기를 뒤집어 놓자 검은색 피덩이가 아기의 입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였어요. 의사는 검진을 마친 후 웃으면서 모두 다 정상

이며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날 호사가 아기의 청력검사를 했는데 한쪽귀의 청력은 100%에 도달하지만 다른 한쪽귀의 청력은 80% 밖에 안됐다. 누구얼은 계속 법공부를 하고, 아기에게도 대법음악을 들려줬다. 다시 검사할 때는 두귀의 청력이 모두 100%에 도달했다. 누구얼은 말했다: “나와 남편은 사부님께서 아기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한 사천 파룬궁수련생의 외손녀는 출생 후 청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와 딸은 매일 외손녀 귀가에 MP3로 파룬궁(大法) 음악《보도(普度)》와《제세(濟世)》를 풀어 놓았다. 또 아이를 안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성심

껏 넘겼다. 두달 후인 어느 날 외손녀는 밖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 놀라 깨어나면서 “와!”하고 크게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때부터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됐다.

올해 설기간 한 북경 중학생이 밍후이왕에 보낸 축하편지에서 말했다: “저는 달이 채 되기 전에 태어났기에 기관이 채 자라지 않아 병원에서 부모님에게 살릴 생각을 말고 포기하라고 권해 부모님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하는 할머니는 포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오직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던 내가 대법사부님의 불광아래에서《보도(普度)》와《제세(濟世)》의 미묘한 음악속에서 구원받아 지금은 신체가 건강한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면의 계속)고 있다. 무한 폐렴이 폭발한 후 무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는 ICU로 파견됐다. 형의 압력은 아주 컸다. 5월 초, 형은 지쳐 쓰러졌고 열이 났는데 결국 확진됐다! 형은 곧 병원에 입원했고 호흡기를 달았으며 아주 위태로웠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말했다: “형 내가 목숨을 살릴 방법을 알려줄 테니 종이를 준비해 메

모세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이 ‘구자 진언’을 성심성의껏 끊임없이 외우세요, 마음으로부터 성심껏 외우면 영험해요, 소리를 내지 못하면 묵념해도 돼요.” 형은 “알았다. 외울게”라고 말했다.

예전에 형은 어릴 때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의 위대함과 초상(超常)함을

알지 못했다. 행운스러운 것은 앞길이 없는 상황에서 형은 ‘구자 진언’을 접수한 것이다. 이를 후 그는 이미 열이 내렸고 호흡도 안정되어 퇴원 준비를 한다고 했다. 형본인이 의사지만 현대과학은 그의 무한 폐렴을 치료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아주 빨리 병세가 나아지게 했는데 이번 경험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